

해외 ICT 표준화 동향

2015. 3

5th Week

목 차

1. 본문

▷ ITU, 2015 세계전파통신회의를 위한 준비회의 개최

2. 단신/토막뉴스 3 쪽

3. 국내뉴스 4 쪽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게시물 보기 : TTA 홈페이지 ▷ 자료마당 ▷ TTA간행물 ▷ 표준화 이슈 및 해외 동향

1. ITU, 2015 세계전파통신회의를 위한 준비회의 개최

(Meeting Opens to prepare for ITU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 2105)

보도날짜 2015.03.23

출 처 ITU

사 이 트 http://www.itu.int/net/pressoffice/press_releases/2015/CM05.aspx#.VRDL2bIO59A

- 세계전파통신회의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를 위한 두 번째 준비회의 (CPM, conference preparatory meeting)가 제네바에서 3월 23일에 개최되었음
 - CPM에서는 2015년 11월 2일부터 27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릴 WRC-15에 대한 보고서를 통합 및 마무리하고,
 - ITU 전파통신부에 의해 행해진 WRC-15 의제에 대한 규격, 기술, 운영 및 절차 등의 검사가 이루어짐
 - CPM 보고서는 WRC-15 제안의 준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ITU 회원국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함
- WRC는 회원국들이 모든 이슈를 인지하고, 회의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옵션들을 이해하고 있는지 등의 기반마련을 위한 준비회의를 비롯한 준비과정을 필요로 한다고 ITU 사무총장 홀린 자오(Houlin Zhao)는 언급함. 그는 또한, CPM이 WRC-15 이전에 통합된 보고서를 준비하는 역할을 하며, 이 보고서가 21세기 세계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WRC-15 어젠다의 이슈를 해결하는 방안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회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음
- 매 3년에서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세계 전파통신 회의에서는 전파규칙(Radio Regulations)¹⁾을 검토하고 개정하게 됨. 어젠다는 ITU 이사회를 통해 결정되는데, 이전 WRC에서 제안한 사항과 ITU 전권회의에 의해 거론된 문제들을 고려한다고 함
- WRC-15에서는 기존, 신흥 그리고 미래의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기술의 발전에 맞춰 전파규칙 국제 스펙트럼 규제 체계의 관련된 부분을 검토한 연구 결과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함. WRC-15는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의 제한된 자원을 활용하고 위성궤도를 관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함

1) 전파규칙(Radio Regulations): 전파를 사용하는 모든 국가가 지켜야하는 국제간 조약.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과 정지궤도 위성, 그리고 비 정지궤도 위성의 이용을 규제하는 국제조약 [참고: 정보통신기술용어해설]

단신/토막뉴스

ANSI, 2015 세계 표준의 날 주제 설정

http://www.ansi.org/news_publications/news_story.aspx?menuid=7&articleid=faf56106-847e-4696-87be-649e6d3bd7ce
(2015.03.20.)

- 2015년 10월 1일 “표준-세계 공통 언어”라는 주제로 세계 표준의 날(2015 U.S. Celebration of World Standards Day)행사가 워싱턴 D.C.의 페어몬트 워싱턴(Fairmont Washington)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발표함
- 1970년에 시작되어 현재 전 세계에 알려진 세계 표준의 날 행사는 매년 표준 및 적합성평가 커뮤니티의 대표로 구성된 기획위원회에 의해 기획되고, 올해 행사는 소비자가 전협회(CEA, Consumer Electronics Association)가 관리할 예정임. 행사는 미국표준협회(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와 연방표준기술국(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에서 공동 의장을 맡음

국내뉴스

미래창조과학부, 9대 ICT 신산업 발표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le_id=20150324194125

(2015.03.25.)

- 정보통신기술(ICT)이 선도하는 창조 한국 실현을 위해 정부가 꼽은 9대 전략 산업 분야는 소프트웨어(SW),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정보보안, 5G 이동통신, UHD, 스마트 디바이스, 디지털콘텐츠, 빅데이터라고 함

- 미래창조과학부는 K-ICT 전략을 수립해 발표하면서 SW를 비롯한 신산업 분야 9대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4대 분야 17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고 3월 25일 밝힘

1. 소프트웨어 분야는 2019년 수출액 규모 10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로 현재보다 두 배 가량 산업을 성장시킨다는 계획

- 이를 위해 8대 SW 기초분야별 연구거점을 구축하고, VC(벤처캐피털)가 투자한 창업 성장 기업에 연구개발(R&D)을 지원할 예정
- GCS 사업(전문기업육성)의 자유공모형 전환과 중소 벤처 M&A 펀드에서 SW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세계시장 진출을 밀착 지원한다고 함
- 정부가 꼽은 8대 SW 기초분야는 OS, 기계학습, CPS*, DBMS*, UI UX*, 분산컴퓨팅, 알고리즘, 지능형SW라고 함

* CPS(character per second): 모뎀의 전송률

* DBMS(DataBase Management System):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 UI/UX(User Experience/User Interface): 사용자 경험/사용자와 컴퓨터 사이에서 상호작용을 돕는 매개체

2. IoT 분야는 통신사와 같은 대기업 외에도 중소중견 기업 육성에 집중

-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지자체가 협력하고 헬스케어와 스마트시티 분야에는 대규모 실증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함. 나아가 7개 전략업종별로 2019년까지 1천242억 원을 투자, 실증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함
- 글로벌 민관 협의체를 통한 글로벌기업, 대기업과 협력해 IoT 중소 벤처 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2019년 200개까지 육성시킨다는 계획
- 이와 함께 IoT센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보안 강화를 위해 20억 원을 투자해 'IoT 시큐리티 센터'를 구축할 계획

3. 클라우드 분야는 지난해 5천억 원 규모에서 다섯 배 급성장한 2조5천억 규모로 키울 예정
 - 공공서비스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을 꾀하고, 산업단지 클라우드 적용 등을 통해 공공민간의 클라우드 이용을 늘릴 예정
 - 나아가 클라우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원스톱 해결을 지원하고 기술맵 기반의 기업특화 R&D에 집중하며, 이를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 10곳을 육성한다고 전함
4. 정보보안에서는 서비스에서의 제값을 받는 문화 조성이 정부가 노력하는 부분임
 - 현행 수준에서 유지보수 대가 외에 10%가 추가될 수 있게 하고 사이버안전 대진단을 통해 신시장을 창출한다고 발표함. 특히 주요기반시설 지정을 늘린다는 방침임
 - 7곳의 특성화 대학을 지정하고, 고용 계약형 석사과정을 확대하는 방식 등의 보안 전문 인력 양성도 동시에 추진한다고 전함
 - 아울러 정보보호 연구소, 대학, 벤처 등이 참여하는 '사이버 시큐리티 스파크'를 조성하여, 침해사고 대응모델에 따라 맞춤형 해외진출도 추진할 계획임
5. 통신업계 최대 화두인 5G 이동통신에는 상용화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 총 6천억 원을 투입하고,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 세계 최초 시연에 나선다는 계획임. 또한,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표준화 공조를 추진하고,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촉진을 통한 신규투자를 유도한다고 밝힘
6. 방송산업은 UHD를 주력산업으로 꼽았는데, UHD 주파수 분배를 통해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를 도입한다는 계획
 - 2017년까지 유료방송 가입자의 15%까지 UHD 시청가구를 확보하고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의 50%까지 UHD 콘텐츠 제작에 투입한다는 계획임
 - 미디어 벤처 육성을 위해 '창조 ICT 스마트미디어 센터'를 확대하고, 혁신적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미디어 규제 최소화 원칙을 적용해 나간다는 계획
 - 이를 통해 기존 방송산업과 스마트미디어 시장 규모를 17조3천억 규모에서 2019년 26조8천억 원 수준으로 키운다는 목표를 정함
7. 스마트 디바이스 부문에서는 10대 디바이스, 10대 핵심부품 기술 개발에 나서고 지역거점과 협력해 2019년까지 1천개 제품을 새로 만든다는 것이 요점인데, 스마트 헬멧과 웨어러블 에어백 등을 지칭함. 더불어 판교 창조 ICT 디바이스랩을 대구로 확대하고, 해외 통신사업자의 국내 인증랩을 설치하여 해외진출을 지원한다고 발표함

8. 디지털콘텐츠 분야는 '창조 ICT 콘텐츠 비즈센터' 설립으로 성장 가속도를 낼 예정

- 콘텐츠 산업 지원기능을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전국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유망 콘텐츠와 원천기술을 개발한다는 계획임
- 중국과의 평요우(친구) 프로젝트 추진 등으로 글로벌 스타기업을 육성도 주요 지원책이라고 함

9. 빅데이터 분야는 제조, 건강, 기상, 스포츠, 재난, 유통, 금융 등 유망업종에서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

- 이를 위해 3년간 350억 원을 투입, 빅데이터 3대 강국으로 오른다는 계획을 세움
- 빅데이터로 시민체감형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시범사업을 2017년까지 6곳에서 추진하고,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개인정보보호가 조화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 제.개정을 추진한다고 전함